

존경하는 대광고등학교 동문님께

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모교를 응원해 주시는 동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문님들의 모교에 대한 자부심과 헌신이야말로 지금의 대광고를 있게 한 든든한 기반이며, 우리 모두가 지켜가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은 학교의 중요한 변화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교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서 건학이념인 경천애인과 인성교육을 실천하며, 많은 인재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교는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그동안 유지하여 오던 자율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오늘 교육부에서 최종 승인되어 2026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변화라기보다는, 재정적 어려움과 외부 환경으로 불가피하게 수용해야만 했던 결정이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교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동문님들께 당혹감, 상실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혼란스럽지만 대광의 모든 구성원은 후배들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공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안에서 모교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닥뜨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원치 않았던 방향일지라도, 모교가 자율고로서 쌓아온 역량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고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그 역량을 더욱 많은 학생에게 확장해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환은 단지 교육과정의 조정이나 학교 운영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학교 문화를 새롭게 세우고,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관계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경천애인을 실천하며 기독교사의 소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동문님의 관심과 후원이야말로 이 어려운 전환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 특별히 미주지역 대광총동창회에서 비영리법인을 만들고 많은 동문님이 모교를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올해 목표한 모교 후원금 2억원을 보내주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이상영 미주지역 총동창회장님과 모든 동문님께 대광의 모든 구성원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누구보다 학생을 사랑하며 교육에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많은 동문님의 기도가 있기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차리라 믿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실망보다는 가능성을, 불안보다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성숙한 교육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과 소통하며 모교가 경천애인을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문님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하며 모교의 미래를 향한 여정에 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대광고등학교 교장 조순묵 드림